

2022년 1차 산별현장교섭 상견례 진행 단체교섭의 핵심 “소통” 병원발전의 핵심 “동반성장”



고대의료원을 꿈의 직장으로 만들어줄 2022년 산별현장교섭이 포문을 열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정릉에 위치한 의료원 본부회의실에서 고대의료원지부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1차 교섭이 진행됐다.

의료원은 김영훈 의무부총장, 김병조 의무기획처장, 김호용 사무국장을 비롯해 조홍석 노사협력팀장, 이종철 미래전략팀장, 김준겸 인사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추영수 선임간호부장이 참관자격으로 참석했다. 노동조합은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서울지역본부 최희선 본부장, 노재옥 지부장을 비롯해 간부들이 참석했다.

1차 산별현장교섭은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되어 노사 대표 인사말을 주고 받았으며 앞으로의 교섭방향을 결정짓는 교섭 원칙을 합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교섭은 부서 간담회 종료 후 6월 23일 1차 임시대

의원대회를 통해 요구안이 확정되면 7월 초 돌입할 예정이다.

김영훈 의무부총장,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인사말에서 “작년 12일 동안 파업을 했다. 그 경험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올해는 가장 모범적인 합의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대의료원이 모범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하며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이다. 머리를 맞대고 마음이 통한다면 분명히 올해 좋은 성과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위원장, 직원들 마음의 일상회복이 중요

고대의료원이 사회적·공공적 역할 도맡아 줄 것

나순자 위원장은 “작년 노사의 고충을 많이 알게 되었고 파

업의 과정을 겪은 만큼 올해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올 해는 조합원 요구가 너무 높다. 코로나19 동안 너무 고생해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의식들이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 이후에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교섭을 통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에서 코로나19 이후 사립대 병원들의 사회적·공공적 역할과 관련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노사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복지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진행 중인데 의무부총장님이 사립대 병원의 공공적 의미와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다. 사립대병원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셔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희선 본부장, 교섭때만큼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최희선 본부장은“작년 파업을 통해 노사가 값진 경험을 했다. 올 해는 소통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 교섭때 만큼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교섭을 했으면 좋겠다. 올 해 고대 교섭이 서울지역본부의 모범이 되어서 잘 해결되었으면 한다. 기대가 많이 크다. 고대의료원의 노사관계도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교섭에서 언급한 노조 사무실 이전과 교섭 위원으로 간호부장을 배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재옥 지부장, 2년간 고생하고 희생한 직원 위한 교섭

새로운 노사관계를 쓰는 교섭으로
노재옥 지부장은 “코로나19로 2년 반 동안 직원들의 고생과 희생이 많았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올 해 임단협이다보니 요구안이 많다. 요구안은 4월 말부터 지금까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이 직접 제출한 요구인만큼 요구안이 많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직원들이 만족하는 교섭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 “최근의 노사관계는 구시대적 노사관계를 탈피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쓰는 측면이 많은 것 같다. 부총장님이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새로운 노사관계를 이번 교섭에서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

노사 대표위원들의 인사말이 마무리 된 후 8가지 조항이 담긴 교섭원칙을 확인한 후 교섭원칙 합의식을 진행했다. 교섭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단체교섭은 주 1회 교섭을 원칙으로 한다.
- 화요일 오후 3시(단,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는 노·사가 협의한다)
- 2. 교섭위원은 노사가 각 6인(간사 1인 별도)으로 한다.
- 3. 비전임 교섭위원 공가는 교섭당일 3인(안암, 구로, 안산 각 1인)으로 한다.
- 4. 참관인 단체교섭 시, 교섭이 방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한다.
- 5. 회의는 공개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녹음 및 사진촬영을 허용한다.
- 6. 노사 교섭대표자는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노사가 협의한다.
- 7. 교섭 사회는 노사 윤번제로 한다.
-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시작이 좋은 교섭, 끝까지 좋은 교섭으로 가려면
병원성장과 더불어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이 핵심
이어야 한다.**

1차 교섭에서 의료원측 교섭위원들은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고 나아가 발전하는 교섭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섭원칙 또한 작년에 비해 항목들이 자세히 기재되어 합의됐다. 이렇듯 고대의료원의 교섭문화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되면서 마주하게 될 요구안을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논의하느냐다.
고대의료원이 각 병원마다 건물을 증축하고 제 4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등 무서운 기세로 발전의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모든 발전의 토대는 늘 강조하지만 바로 직원들이었다. 직원들이 있었기에 의료원발전이 있었던 것이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이 인사말에서 강조했던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교섭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6월의 하루교육에 초대합니다.
하루교육은 1일의 공개**

6월 16일(목) 안산 : 교잔동 스페이스 오즈
6월 21일(화) 안암 구로 : 영등포 보건의료노조